

##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

예배 인도자는 먼저 아래 사항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전 인도자는 대표기도자를 정해서 기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예배인도자는 예배를 시작할 때는 컴퓨터, 게임기, 텔레비전을 모두 껐는지 확인합니다.
3. 하던 일을 모두 멈춘 후 온 가족이 함께 앉아있는지 확인합니다.
4. 예배 인도자는 예배 전 미리 순서지를 읽어보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부모님들을 추억하고 한해도 함께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요 4:24)

찬 송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다 갈 이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 한번 가면 안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대표기도 (가족 중 한명이 기도, 혹은 인도자가)

이 문서는 새성실교회(sheem.or.kr)에서 설 명절 가정예배를 위해서 제작 된 순서지와 말씀입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배포되었습니다.

성경봉독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인 도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선포 (설교문 참조) ..... 인 도 자

찬 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설 교 문

(예배 인도자는 미리 한 번 읽어 숙지 후 사용합니다)

##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가정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작년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기뻐던 일은 어떤 것이었나 생각해 봅시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기쁩니다. 자녀들의 성적이 오르고,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건들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추억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이 올라서 기뻐했던 아이는 얼마 후에 떨어진 성적으로 다시 근심을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에 기뻐하던 사람들도 역시 여유가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면 근심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보다는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 세상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분명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생활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힘찬 모습보다는 찌들고 힘든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 행복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이러한 명령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명령 앞에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어떻게든지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한 훈련병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의 명령 뿐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더욱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2013년 1월에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에서 양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10명 중에서 4명이 “양심보다는 돈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10억을 준다면 1년쯤은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나에게 기회가 된다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물질 만능의 시대가 가져온 결과일 것입니다.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이익을 취해야 하는 것이고, 이익은 물질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버리면서라도 물질을 취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고민하면 그것은 거짓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물질이 부족해 염려하고 불편하니 물질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채워도 역시 근본적인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한 행복을 취해야 합니다. 그 행복은 우리가 늘 소망하는 물질과 사회적 지위와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칠십인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다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전도를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이 항복하며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당연히 너희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은혜의 체험은 오랜 시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련회나 부흥회에서 받은 은혜의 기쁨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길어봐야 몇 주 간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사람이 조금 늘었다고, 사업이 조금 번창한다고, 성적이 올랐다고, 가족들이 화목해졌다고, 회사에서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은 차원이 낮은 기쁨입니다. 금새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

지 않고 체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근본적인 행복을 취해야 합니다.**

탈무드의 지혜에 따르면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참된 행복은 구걸하던 사람이 은과 금을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의 참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자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뛰어간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뻐합니다.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들에게 전통적인 한 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근본적 기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으로 자리잡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행복한 삶을 취하고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복과 기쁨의 근본이 되어 주세요. 사업의 형통, 가족의 건강, 재물의 풍성함의 얕은 행복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의 근본 되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한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문서는 새성실교회(sheem.or.kr)에서 설 명절 가정예배를 위해서 제작 된 순서지와 말씀입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배포되었습니다.